

최근 혼인 및 출생아 수 증가의 특징

| 이슈 분석 |

이태열 선임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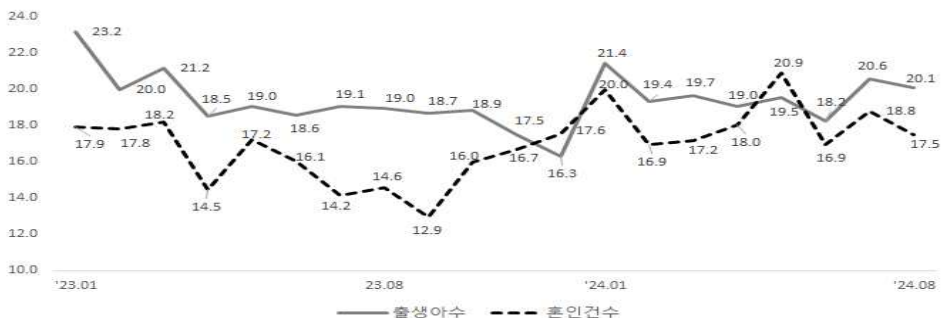
요약

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.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의 변화를 혼인율·출산율 요인과 인구구조 요인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, 혼인율·출산율 요인에서도 긍정적인 추이가 발견되고, 90년대생에 의해 인구구조적 요인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그러나 혼인율·출산율의 절대 수준 자체가 너무 낮고, 다시 인구가 급감한 2001년 이후 출생자들이 20대에 진입하고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아 지속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이 필요할 것임

-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면서 장기간 지속되었던 극심한 저출산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(그림 1) 참조)
 - 혼인 건수는 2023년 9월 12,940건을 저점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2023년 연간 19만 3,657건을 기록하여 2022년의 19만 1,690건을 상회하였음
 - 출생아 수는 2023년 12월 16,305명을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여 2024년 4월에는 전년 동월비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, 2024년 1~8월 누계 15만 8,011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간(158,609명) 대비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룸
 - 본고는 이러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변화를 각각 인구구조 요인과 혼인율·출산율 요인에 의한 변화로 분리하고¹⁾ 최근 변화의 특징을 논의하고자 함

〈그림 1〉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추이

(단위: 천명, 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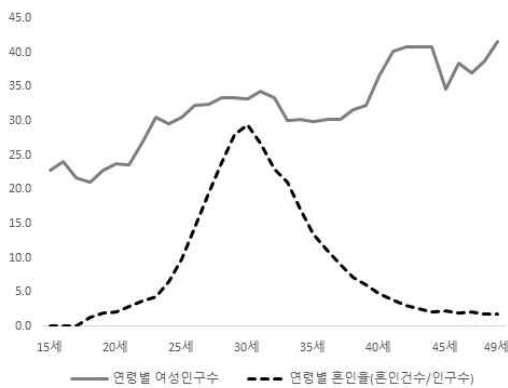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1) t년도 출생아 수는 t년도 연령별 여성인구에 t년도 연령별 출산율을 대입하여 산출할 수 있는데, 여기에 t+1년도 연령별 여성인구를 t년도 연령별 출산율에 대입함으로써 t+1년도의 인구구조 요인에 의한 출생아 수 변화를 산출할 수 있으며, 나머지 부분은 출산율 요인에 의한 출생아 수 변화가 됨. 혼인 건수의 경우도 연령별 여성인구와 연령별 혼인율을 활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별 변화를 산출하였음

○ 혼인의 경우 인구가 증가한 90년대생이 30세 전후의 연령대에 진입하고 혼인을 자체도 개선되면서 최근의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(〈그림 2〉, 〈그림 3〉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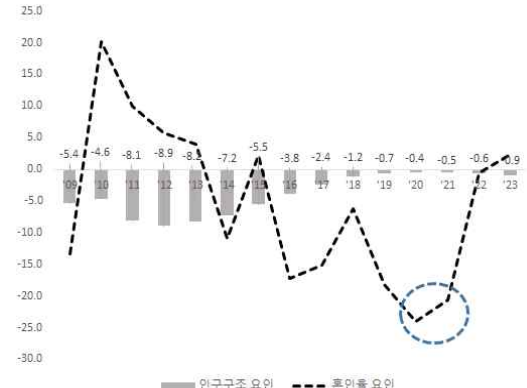
- 여성 인구 분포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33~39세(84~90년생)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가 25~32세(91~98년생)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
- 인구구조 요인에 의한 혼인 건수 변화는 2012년 이후 91~98년생 여성들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완화되고, 혼인을 요인에 의한 혼인 건수 영향은 2023년에 이르러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었음
 - 2020, 2021년 중 코로나19에 따른 집회 제한 등으로 혼인 건수 감소폭이 컸던 만큼, 최근의 혼인 건수 증가를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
- 인구구조 요인에 의한 혼인 건수 감소세는 크게 약화되었지만, 혼인 건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혼인 건수가 증가할 경우 혼인을 요인에 의한 것²⁾으로 판단해야 함

〈그림 2〉 연령별 여성인구 및 혼인율(2023년)
(단위: 만 명, 천 명당 건수)



주: 연령별 여성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하였으며, 분석 범위는 합계출산율 산출 대상인 15~49세를 대상으로 함
자료: 통계청; 행정안전부

〈그림 3〉 혼인 건수 변화의 요인별 영향
(단위: 천 명)



주: 연령별 여성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하였으며, 분석 범위는 합계출산율 산출 대상인 15~49세를 대상으로 함
자료: 통계청; 행정안전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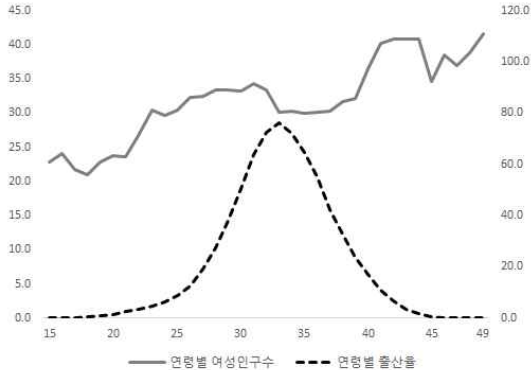
○ 출생의 경우 2017년 이후 감소세가 약화되는 추세가 계속되다가 2024년에 들어서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(〈그림 4〉, 〈그림 5〉 참조)

- 일반적으로 출산 연령은 혼인 연령보다 늦은 관계로 인구구조 요인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폭 완화 현상은 혼인 건수의 경우보다 다소 늦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고 있음
- 2017년에는 인구구조 및 출산율 요인에 의한 영향이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2013년과 더불어 출생아 수가 가장 크게 감소했으나, 이후에는 인구구조와 출산율 요인에 의한 출생아 수 감소폭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

2) 2023년 연령별 여성인구를 활용해서 2024년 연령별 여성인구를 쉽게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연령별 혼인율과 결합하여 2024년 인구구조 요인에 의한 혼인 건수 영향을 추정한 결과, 약 1,300여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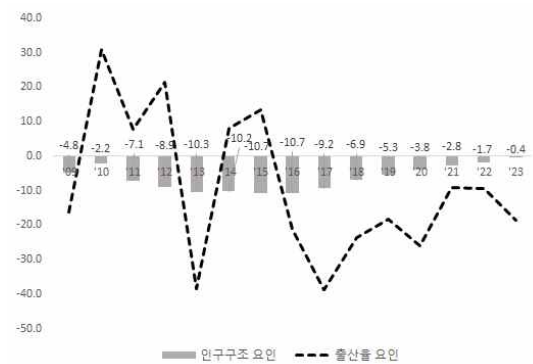
- 최근에는 91~98년생이 주요 출산 연령에 진입하면서 인구구조 요인에 의한 출생아 수 감소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기³⁾ 때문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경우 사실상 출산율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

〈그림 4〉 연령별 여성인구 및 출산율(2023년)
(단위: 만 명, 천 명당 건수)



자료: 통계청; 행정안전부

〈그림 5〉 출생아 수 변화의 요인별 영향
(단위: 천 명)



자료: 통계청; 행정안전부

○ 최근 혼인 건수 및 출생아 수와 추이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, 구조적인 반전을 위해서는 혼인율 및 출산율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

- 2024년에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출생아 수도 증가세로 반전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국면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임
 - 특히, 이러한 현상은 인구구조 요인보다는 혼인율 또는 출산율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변화인 만큼 더욱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음
- 그러나 합계출산율의 절대 수준, 인구구조 변화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구조적인 저출산 국면 해소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음
 - 2023년 합계출산율은 0.72로 나타나는 등 절대적인 수준이 너무 심각해서 인구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 2.1은 커녕 1.0까지 회복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 - 91~98년생의 30대 진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요인은 혼인 및 출산율 증가시키기보다는 감소세를 둔화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, 인구가 다시 급감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출생자들이 20대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도 어두운 상태임(〈그림 2〉, 〈그림 4〉 참조)
- 2024년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한다고 하여도 심각한 저출산 국면은 지속되고 있는 것인 만큼 기존의 혼인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더해서 저출산 국면 지속에 대비한 이민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완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

3) 2023년 연령별 여성인구를 활용해서 2024년 연령별 여성인구를 파악하고 여기에 2023년 연령별 출산율을 적용하여 2024년 인구구조 요인에 의한 혼인 건수 영향을 추정된 결과 약 7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